

『熙朝軼事』主題別 人物考察

朴 種 善*

<目次>

- | | |
|---------------------------|--------------------|
| I. 序論 | III. 『熙朝軼事』의 내용 고찰 |
| II. 李慶民의 生涯와
『熙朝軼事』 解題 | IV. 結論 |

<국문 초록>

朝鮮時代는 양반 중심의 신분제 사회였다. 현재 전하는 각종 기록들을 살펴봐도 양반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층의 문화나 기록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양반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몰락해가고 中人들이 오히려 양반들을 능가하는 경제적인 富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서 차츰 中人들을 중심으로 하는 委巷文學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中人들의 위항문학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 1712년에 洪世泰에 의해 발간된 『海東遺珠』이다. 이로부터 『昭代風謠』(1737), 『風謠續選』(1797), 『風謠三選』(1857)과 같은 시문집이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양반계층에 비해 신분적으로 뒤이지만 문학적 재능만은 양반 못지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中人들의 傳記類를 발간하기 시작한다. 그 시작을 열게 된 것이 1844년에 간행된 趙熙龍의 『壺山外記』이다. 이를 이어서 간행된 것이 劉在建의 『異鄉見聞錄』(1862)이다. 『이향견문록』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이 바로 『熙朝軼事』(1866)이다.

熙朝軼事는 조선후기 문신인 李慶民이 正史에 오르지 못하는 못하고 세상에

*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졸업 / pjs777@kangwon.ac.kr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물들의 열전 및 일화를 바탕으로 편찬한 것이다. 모두 상, 하 2권으로 되어있고 85명의 인물들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 그 수록된 양이 『이향견문록』에 비해서 적고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향견문록』에 수록된 인물들과 중복되지만 그 가운데 鄭六同, 朴義, 金禹錫, 李亨翼, 安龍福, 李最濬, 金弘遠, 金家母 등의 인물은 새롭게 수록되어 있는 인물이다. 새롭게 수록된 인물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대외적 활동이 활발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은 『회조일사』가 간행된 1866년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회조일사』에 수록된 인물들은 큰 범주에서 보면 孝友(10명), 忠義(13명), 文學(30명), 書畫(9명), 醫(3명), 碁(2명), 琴(1명), 卜(1명), 其他(6명), 女性(10명)으로 나눌 수 있다. 작자는 이미 귀하게 되었거나 또 表彰된 사람을 실지 않고, 오히려 드러나 있지 않은 사람들의 전기를 수록한 것은 그 뛰어난 점이 인멸되어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본 논고에서는 『회조일사』 주제별 인물들의 분석을 통해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점과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당시 시대상을 고찰해 봄으로써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은 중인들이 펼쳤던 사회 활동상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委巷文學, 熙朝軼事, 中人傳記, 人物像, 列傳

I. 序論

본 논고는 조선후기 中人들의 傳記를 모아서 1866년에 간행한 『熙朝軼事』의 인물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여러 중인들의 전기류 가운데 『熙朝軼事』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아직까지 전체 85명의 인물들에 대한 완전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이다. 최초로 85명의 인물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熙朝軼事』는 전체 2卷 1冊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10가지의 주제별로 총 85명의 인물들에 대한 일화나 전기가 실려 있다. 본 논문에

서는 85명의 인물들에 대한 완역을 주로 다루면서 각 인물들을 당시의 시대상이나 현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또 각각의 특색 있는 활동상을 살펴봄으로서 중인들의 삶을 다시 한 번 고찰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런데 중인이라는 용어에 대해 許南郁은,

중인(中人)이라는 名稱이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는 문헌적 考證이 어렵다. 이는 그 명칭을 사용한 처지에 따라서 각자 委巷, 中人, 閭巷, 平民 등으로 다르게 지칭되었기 때문이다.¹⁾

라고 하여 그 유래 및 명칭을 확정짓기는 어렵다고 하였다.²⁾

조선시대는 유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봉건적인 신분사회였다. 현재까지 전하는 대부분의 기록이나 문화는 당시의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에 관한 내용이 그 主流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신분질서 사회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중인 이하 계층이 주도하여 委巷文學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허울뿐인 명분만 가지고 있던 양반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위가 무너지면서 그와는 대조적으로 상업 활동으로 富를 축적한 중인계층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이러한 신분질서의 변화 속에서 중인들은 당시 양반들이 향유하던 예술 활동인 한시의 창작활동을 통하여 상층으로 진출 욕구를 표현하였다. 하지만, 창작활동이 한시라는 범주에만 국한된다는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중인들의 귀족문학 모방활동은 양반들과 같이 詩社를 조직한다거나

1) 許南郁, 『朝鮮後期 文學思想의 흐름』, 江原大學校 出版部, 2007, p.29.

2) 中人層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쓰였다.(許南郁, 위의 책, p.30.)

- ① 委巷人. 委巷之士 (村隱集., 酬唱詩序. 浣巖集序. 八家百選引)
- ② 中人. 中人輩 (杏下述, 輿誦. 正祖實錄 卷三十三, 15年條)
- ③ 閭巷人. 閭巷之士 (華谷集序. 存齋集. 漁山先生詩稿序. 昭代風謠序)
- ④ 平民 (具滋均 「朝鮮平民文學史」)

중인들의 한시 작품을 모아서 시집을 편찬하는 등 중인들에게는 상층문학으로 느껴졌던 양반들의 예술 활동을 답습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중인들의 위항문학은 詩社의 조직, 공동 시문집 제작, 중인들의 傳記를 중심으로 하는 중인의 역사 저술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회조일사』가 위항문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바로 중인들의 전기이다.

중인들의 傳記를 저술한 것은 『회조일사』에 앞서 1844년에 간행된 『壺山外記』가 있다. 『호산외기』는 趙熙龍이 간행한 것으로 39편에 걸쳐 42명의 중인들의 전기를 수록하고 있다. 이를 이어 간행된 것이 劉在建이 『회조일사』보다 4년 앞선 1862년 간행한 『異鄉見聞錄』이 있다. 모두 10권 3책으로 되어있으며, 중인들의 전기류에서 가장 많은 인물인 308명을 다루고 있어 사료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회조일사』에 수록된 인물들은 대부분 『이향견문록』의 인물들과 중복된다. 하지만 그 내용상으로 살펴보면 『이향견문록』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같은 인물일지라도 서술한 내용의 차이가 있거나 간략하게 서술한 내용도 있고, 또 자세히 서술한 내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일한 인물들의 간략함과 상세함의 차이가 아니라, 『이향견문록』에는 수록되지 않은 인물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鄭六同, 朴義, 金禹錫, 李亨翼, 安龍福, 李最濬, 金弘遠, 金家母 등이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다.

鄭六同은 임진왜란 때 노량해전에서 왜적을 물리치는데 공헌하였고, 朴義는 병자호란 때 병마절도사 金俊龍의 휘하에서 淸의 장군 揚古利를 쏘아 죽였던 인물이다. 그리고 金禹錫과 李亨翼은 병자호란 때 主和를 강력히 반대한 인물들이었다. 또한 安龍福은 울릉도가 일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공을 세웠고, 金弘遠은 <大界全史> 40권을 지었다고 하였다.³⁾

『회조일사』에 수록된 인물들은 큰 범주에서 보면 孝友(10명), 忠義(13

3) 田美姬, 『熙朝軼事』, 西江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90, p.13.

명), 文學(30명), 書畫(9명), 醫(3명), 碁(2명), 琴(1명), 卜(1명), 其他(6명), 女性(10명)으로 나눌 수 있다. 작자는 이미 귀하게 되었거나 또表彰된 사람을 실지 않고, 오히려 드러나 있지 않은 사람들의 전기를 수록한 것은 그 뛰어난 점이 湮滅되어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희조일사』에 수록된 85명의 인물들을 고찰해봄으로써 중인의 신분으로 다양한 능력을 펼쳐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중인들의 삶과 당시의 시대상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참고로 본 논문의 인물 번역은 李相鎭의 『異鄉見聞錄』과 같은 기존의 연구 성과물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을 밝혀두며 기존 연구자들이 흘렸을 많은 땀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II. 李慶民의 生涯와 『熙朝軼事』 解題

1. 李慶民의 生涯

『熙朝軼事』의 작자는 李慶民이다. 이경민은 1814년(순조 14)에서 1833년(고종 20)의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江陽, 자는 元會, 호는 雲岡이다. 빈한한 집안에 태어났으나 官界에 나아가 벼슬이 僉知中樞府事に 이르렀다. 청렴고결한 선비로 시국이 어려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향리에서 은둔생활을 하였다. 또한 이경민은 영조·정조 때 역관으로 일본에 가서 詩로 이름을 떨쳤던 李彦瑱과 친족이며, 『風謠續選』의 跋文을 썼던 眞愚堂⁴⁾ 李德涵의 玄孫이다. 그리고 자신의 書屋인 雲岡書屋에서 『희조일사』를 활자로 간행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富를 누렸던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李慶民의 생애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는 기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

4) 眞愚堂 : 李德涵을 말함. 조선 시대의 가객으로 『청구가요』에 시조 3수가 전한다.

다. 그에 대한 기록도 江陽 李氏의 族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중인 가문의 萬姓譜라고 할 수 있는 <姓源錄>에 그의 世系가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경민은 江陽 李氏 가문에서 28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江陽 李氏의 1대조는 李開로 협천 이씨의 시조이기도 하다. 이개는 시호가 문충으로 신라말의 충신으로 합천의 戶長을 지냈으며, 6세손인 李仲庇가 고려 때 典書로 강양군에 봉해졌기 때문에 후손들이 본관을 강양으로 하였다. 이경민의 5대조인 德涵은 『風謠續選』의 跋文에 同知中樞에 올랐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4대조인 思龍은 孝道로 漢城府判尹에 追贈되었다는 것이 『異鄉見聞錄』에 실려 있다.

또한 李慶民은 稷下詩社의 일원으로서 崔景欽, 劉在建, 趙熙龍, 朴應模 등과 교류하면서 문학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현재 전하는 중인문학 傳記類의 편찬자인 劉在建과 趙熙龍이 직하시사의 일원이었다라는 점이다. 詩社의 모임 특성상 이경민 역시 두 사람의 영향으로 『熙朝軼事』가 편찬되었다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로써 이경민의 개인적 생애에서 詩社 활동과 교류했던 인물들의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熙朝軼事』가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熙朝軼事』 解題

우선 『熙朝軼事』라는 書名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熙朝라는 말은 ‘잘 다스려진 왕조’, 또는 ‘盛代’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⁵⁾ 그리고, 軼事는 ‘逸事’와 뜻이 상통된다. 즉 ‘熙朝軼事’란 ‘빛나는 시대에 뛰어난 인물들이 이야기’라는 뜻이 이해될 수 있다.

위의 서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조일사』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

5) 金哲煥,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p.1346.

도 사회적으로 중인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가진 사람들의 전기나 일화를 중심으로 엮은 책이다.

1866년 李慶民(1814-1883)에 의해 편찬된 『熙朝軼事』는 上·下 2卷 1冊이며, 上卷에 40名, 下卷에 45名の 인물이 실려 있다. 내용은 모두 卽成書에서 뽑아 실었으며, 編者의 書齋인 雲崗書室版으로 간행한 것이다. 南秉吉의 序文과 目次 및 인용 도서목록을 첫머리에 실고 있다.

인용서는 모두 31種으로, 鄭載崙의 『公私見聞錄』, 南有容의 『雷淵集』, 徐命膺의 『保晚齋集』, 朴胤源의 『近齋集』, 洪良浩의 『耳溪集』, 南公轍의 『金陵集』, 尹行恁의 『碩齋稿』와 『方是閒輯』, 그리고 徐秉璫의 『欽恤堂志』와 朴永錫의 『晚翠亭集』, 金洛瑞의 『好古齋集』, 趙熙龍의 『壺山外記』, 劉在建의 『兼山筆記』, 張之琬의 『斐然箱抄』와 『枕雨談草』, 申匡綸의 『委巷瑣聞』 등이 보인다.

南秉吉의 序에서는 利器를 품었으나 때를 만나지 못하여 塵土 중에 매몰되어 있는 인물을 죽은 후에라도 조명을 비추어 이름을 남기게 하는 공적을 높이면서 이러한 高士逸民의 傳 남기는 일은 歷史의 기록을 보완해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風謠三選』의 序를 썼던 崙溪 尹定鉉은 「書熙朝軼事後」를 써서, 이 책이 孝友·忠義로부터 文學·書畫·琴·碁·醫·卜·貞絕之孝行의 順으로 짜여 있고, 近世 名家의 所述에 散在하여 있는 것을 널리 수집하여 인멸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尹定鉉은 자신이 목격한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덧붙였는데, 절개를 지킨 妓女와 한 처녀의 이야기로 내용의 특이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熙朝軼事』에서도 끝부분의 10명을 孝婦와 烈婦의 立傳으로 할애하고 있는데 거의 다 閭巷詩人들의 저술에서 뽑아 실은 것이 특이하다. 『風謠續選』에서 女流의 시를 실어 여항문학의 개념을 넓힌 이후 이들 여항인물의 전기집에는 孝婦·烈女의 이야기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가치관이 忠·孝·烈 등 전통적 윤리의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⁶⁾

중인들의 일대기를 엮은 서적 가운데 가장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것은 『異鄉見聞錄』이다. 모두 10권 3책으로 되어 있으며, 중인층 이하의 인물 308명을 수록하고 있다. 『이향견문록』의 서문을 살펴보면,

대저 저 里巷人들은 일컬을 만한 경학을 연구하였거나 공훈을 내세울 만한 것도 일컬을 것이 없다. 혹은 말과 행동을 기록할 만한 자와 혹은 시와 문장을 남김 이가 있다 치더라도 모두 한적한 물가에서 풀이 말라 죽고 나무가 썩어 없어지는 하찮은 인생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다. 아아! 슬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壺山外記』를 지은 까닭이다.⁷⁾

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대부분 중인들의 傳記類를 편찬한 의도가 위의 서문과 그 맥락을 같이 할 것이다.

『회조일사』는 『이향견문록』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모두 상, 하권으로 85명의 전기를 수록하고 있다. 내용 구성 면에서도 『이향견문록』은 덕과 학문, 충신과 효자·효부, 智謀를 겸비한 호걸들, 가정을 일으킨 여인들, 문장가, 화가 및 서예가들, 의사, 약사, 바둑, 음악, 점술가, 신선, 도사, 승려, 기인 등 다방면에 걸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반면 『회조일사』는 孝友, 忠義, 文學, 書畫, 醫, 碁, 琴, 卜, 其他, 女性의 구성으로 내용 면에서도 『이향견문록』과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인물들이 모두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향견문록』이 1862년에 간행되었고, 『회조일사』는 이보다 4년 뒤인 1866년에 간행되었다. 『이향견문록』에서 주요 인물을 간추린 뒤에 鄭六同, 朴義, 金禹錫, 李亨翼, 安龍福, 李最濬, 金弘遠, 金家母 등의 새로운 인물들을 추가시켜 서술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인물들은 대부분 외세의 침략에 대외적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회조일사』가 간행되던 1866년에 발생한 외세의 침략 사건

6) 『閩巷文學叢書』第九冊 解題 參照.

7) 李相鎭, 『異鄉見聞錄』, 자유문고, p.8, “至夫里巷之人 既無經術勳業之可稱 或有言行可記者 或有詩文可傳者 而皆草亡木卒於寂寞之濱 嗚呼 噫 余所著壺山外記之所以作也”

과 새롭게 추가된 인물들과는 시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인들의 전기류에 절이나 덕행으로 이름난 여성을 수록됨으로써 신분적 사회에서 남녀평등사상의 發露라 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인들이 성장하고 양반들이 몰락해가면서 갑오개혁(1894)을 거쳐 신분질서가 서서히 철폐되어가는 이행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음의 부분에서는 『회조일사』에 수록된 85명의 인물들을 孝友, 忠義, 文學, 書畫, 醫, 碁, 琴, 卜, 其他, 女性의 10가지의 주제로 분류하여 각각의 인물들이 신분적 한계를 넘어서 보여줬던 다양한 능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熙朝軼事』의 내용 고찰

1. 主題別 人物探究

『회조일사』는 크게 10가지의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孝友, 忠義, 文學, 書畫, 醫, 碁, 琴, 卜, 其他, 女性으로 분류되며 아래의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 『熙朝軼事』에 收錄된 主題別 人物⁸⁾

卷	區分	項目	總數	人 物 名
卷 上	I	孝友	10	①韓舜繼 ②劉希慶 ③鄭潤 ④金昌國 ⑤朴泰星 ⑥洪次奇 ⑦金重鎮 ⑧金益春 ⑨尹明相 ⑩宋奎輝
		忠義	13	⑪白大鵬 ⑫文紀房 ⑬鄭六同 ⑭金忠烈 ⑮朴義 ⑯金禹錫 ⑰李亨翼 ⑱吳孝誠 ⑲姜孝元 ⑳田滿車 ㉑李震華 ㉒安龍福 ㉓崔老

8) 앞의 책, p8.

卷	區分	項目	總數	人 物 名
卷上	I	文學	30	②4洪世泰 ②5高斗杓 ②6安光洙 ②7林俊元 ②8李得元 ②9高時彥 ③0金萬最 ③1鄭來僑 ③2鄭敏僑 ③3鄭後僑 ③4白胤耆 ③5韓以亨 ③6李夢鯉 ③7崔天翼 ③8朴永錫 ③9李最濬 ④0金 泳
卷下	II	文學		④1石希璞 ④2李彥瑱 ④3李亶佃 ④4千壽慶 ④5金洛瑞 ④6張 混 ④7王 太 ④8趙秀三 ④9鄭民秀 ⑤0朴允默 ⑤1李至和 ⑤2金弘遠 ⑤3鄭芝潤
		書畫	9	⑤4李壽長 ⑤5嚴漢朋 ⑤6曹匡振 ⑤7金鳴國 ⑤8秦再奚 ⑤9金弘道 ⑥0崔 北 ⑥1林熙之 ⑥2田 琦
		醫	3	⑥3白光炫 ⑥4趙光一 ⑥5李益成
		碁	2	⑥6庾纘洪 ⑥7金鍾貴
		琴	1	⑥8金聖基
		卜	1	⑥9劉雲台
	其他	6	⑦0曹 生 ⑦1廉時道 ⑦2金壽彭 ⑦3庾世通 ⑦4申斗柄 ⑦5文金生員	
III	女性	10	⑦6吳孝婦 ⑦7翠 梅 ⑦8安峽孝婦 ⑦9金家母 ⑧0高節婦 ⑧1嚴烈婦 ⑧2河節婦 ⑧3李孝女 ⑧4蓮 紅 ⑧5嶺東義婦	

2. 主題別 人物考察

熙朝軼事는 총 85명의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 10가지의 주제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孝友이다. 孝友에 속한 인물은 총 10명으로서

① 韓舜繼는 저잣거리에서 유기그릇을 팔던 隱者로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음식을 넉넉히 차려드리기 위해 유기그릇을 파는 것이었고, 유기그릇을 잘 만들고 값도 속이지 않고, 이

익을 자신 혼자만 하지 않고 다른 장인들이나 친척에게도 나눠주는 것에서 효성 뿐만 아니라 덕성까지 갖춘 인물이라 하겠다.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유기그릇을 팔지 않고 스스로 道를 지킨 모습에서 그 사람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 ② 劉希慶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면서 喪禮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國喪까지 주관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禮에 밝을 뿐만 아니라 節義도 높이 평가 되었으며, 枕流臺에서 詩社 활동을 하면서 문인들과 교류하며 지냈다. 여기서는 유희경의 대외적 활동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있다. ③ 鄭潤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希僑와 속리산에 은거하면서 아버지에게 효성을 다했다.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10살 남짓 밖에 나지 않아 같이 늙어가면서 아버지에게 효성을 다했다. ④ 金昌國은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겼는데 밥에 돌이 섞였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리기까지 하는 자신의 가정보다 어버이를 먼저 생각하였다. 어버이를 생각하는 것에 지나친 면이 있다고 여겨지나 어버이의 장수를 위해 10년 동안 치성을 드린 모습을 보였다. ⑤ 朴泰星은 아버지가 세 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46년 동안 정성으로 봉양한 효자이다. 아버지의 상을 치르지 못했다고 追服까지 하려 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17년 동안 시묘살이에도 정성을 다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버이를 생각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이를 수 있다. ⑥ 洪次奇는 아버지 홍인보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어머니와 함께 옥바라지를 하며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려고 노력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신문고를 친다던지 공경대부들에게 매일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결국 아버지가 사형을 면하고 귀양 가게 되었는데, 혼자 너무 동분서주한 나머지 천연두로 14살의 나이로 죽었다. 과연 어린 나이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효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가 지금도 있을 런지 의문스럽다. ⑦ 金重鎭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昏定晨省의 효를 다하면서 어머니가 병을 앓다가 죽자 13살의 나이에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다가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죽었다. 아버지가 살아 계

신데 어머니만을 위해 시묘살이를 하다가 아버지를 봉양하지도 못하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으니 과연 효라고 이를 수 있을 런지 의구심이 든다. ⑧ 金益春은 어려서 학업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모친상을 당했을 때에도 격몽요결을 읽으며 통곡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친상을 당하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으니, 나이 20여세였다. 약관의 나이에 학업에 뜻을 두었다가 부모님을 잃은 상심에 끝내는 죽은 것이다. ⑨ 尹明相은 태어나면서부터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린 젖먹이 동생을 아내에게 키우게 해서 결국 자기 자식은 죽게 되었다. 자신의 자식까지 굶어 죽이면서까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려는 모습이 다소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⑩ 宋奎輝는 아버지 송시성이 효도로 이미 정려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효도에 정성을 다했다. 아버지가 위중할 때 손가락을 베어 피를 마시게 해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했고, 어머니 때에도 그렇게 했으나 효험을 보지 못했다. 평소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였고, 상을 당했을 때에도 그 정성을 다했다. 자신의 손가락까지 베는 등 극단적인 효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忠義이다. 忠義에 속한 인물은 13명으로서

⑪ 白大鵬은 전함을 만드는 관청의 종으로 임진왜란 때 상주에서 전사하였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도망간 李鑑과는 달리 끝까지 싸우다 전사하였다. 그가 평소에 가졌던 기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⑫ 文紀房은 완력이 뛰어나고 용맹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남원에서 무수히 덤비는 왜적들과 싸우다 두 손가락이 빠짐에도 맹렬히 싸우다 전사하였다. 나라를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상과 충절을 일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백대봉과 마찬가지로 결사항전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⑬ 鄭六同은 임진왜란 때 왜적에게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아군을 도와 적을 패전시키는데 공을 세웠다. 입전하지 않았으면 사라져서 기억되지 못했을 인물에 대한 서술로 가치를 가진다. ⑭ 金忠烈은 농간을 부리는 총희 김상궁을 탄핵하면서 정사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인물이다. 권력의 중심

에 있는 인물을 비판하는 주관과 중요사직을 위하는 충의가 돋보인다.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무예가 아니라 소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⑮ 朴義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용맹한 장수인 양고리를 쏘아 죽였다. 이런 지대한 공이 있는 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해 입전하여 후세에 남기게 된 점이 의미를 가진다. 전쟁 상황에서 이처럼 뛰어난 공훈을 세웠음에도 인멸되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많았을 텐데 자료가 남아있어 귀중한 사료라고 여겨진다. ⑯ 金禹錫은 병자호란 때 강화를 반대하면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관철하고 청나라를 배척했다가 청나라 장수의 노여움을 사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 義理라는 것이 비단 사람사이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사이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짐을 보여주고 있다. ⑰ 李亨翼은 병자호란 때 화의를 반대하는 뜻을 임금에게 직언하였지만 결국 화의가 이뤄져서 비분강해 하다가 죽었다. 김우석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자주성과 나라 간의 의리를 중시하고 있다. ⑱ 吳孝誠은 봉림대군이었던 효종이 청나라에 볼모로 갈 때 따르던 여덟 장사중의 한 사람이었다. 어린 아이였던 현종을 업고 수천 리 길을 오갔고, 늘 임금의 곁에서 묵묵히 보필하는 충신이였다. 주변의 세파와 상관없이 한결같은 충의를 보여주었다. ⑲ 姜孝元은 소현세자가 청에 볼모로 갈 때 수행하였다. 나라를 배신한 정명수를 모살하려다 실패하여 죽임을 당했다. 죽을 때에도 정명수를 도운 신하들을 꾸짖는 기개를 보여주었다. 의리를 중요시 여겼기에 나라를 배신한 인물을 용납하지 못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⑳ 田滿車는 백이, 숙제와 비슷한 일화이다. 청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고 고사리를 꺾어 먹고 살았다. 나라의 굴욕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적국의 곡식을 더럽게 여기며 자신이 지키는 자존감과 소신을 굳게 지킨 모습을 보여준다. ㉑ 李震華는 인현왕후를 폐위하려는 무리가 국정을 장악할 때 인현왕후를 모신 의리를 보여주었다. 권력과 상관없이 자신이 모시던 사람에 대한 충성과 의리가 돋보인다. ㉒ 安龍福은 예전부터 울릉도를 차지하려는 왜국 사람들을 자신의 노력과 기지로 결국 승복시킨 사람이다. 현재까지도 영토 분쟁이 되고 있는 독도를 놓고 볼 때 안

용복이 보여준 영토를 지키려는 노력과 충성은 가히 지금도 본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㉓ 崔老는 난리를 일으킨 역적들을 피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서 역적들을 혼비백산 시켜 결국에는 패퇴하게 만든 공이 있다. 이름 또한 전해지지 않고 다만 그 행적만이 글로 전해질 뿐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의 충정과 뛰어난 기지는 누군지 모르는 최씨 늙은이에게 배워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文學이다. 文學에 속한 인물은 30명으로서

㉔ 洪世泰는 시로써 당대에 이름났으며 『海東遺珠』의 작자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까지 문명을 떨쳤으며 벼슬도 하면서 대내적으로 인정받았던 인물이다. ㉕ 高斗杓는 주역에 조예가 깊었으며, 율곡과 퇴계를 흠모하며 성리학에 침잠하였다. ㉖ 安光洙는 반촌에서 풍속을 교화하고 학교를 세워 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데에 큰 공을 세웠다. 마을에서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㉗ 林俊元은 학문에 뜻을 두었다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관직에 나아가 서리가 되었다. 술과 시를 즐기며 문인들과 교류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번 돈을 베풀면서 덕을 쌓았다. ㉘ 李得元은 홍세태에게서 그 시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또한 누이의 변괴에 정성을 다해 도왔고, 진실하고 원만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득원의 딸의 일화까지 기술하여 그 효성과 정신이 아버지에게 연유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㉙ 高時彦은 총명함이 뛰어났고, 시 뿐만 아니라 역관으로 청나라와 왕래했다. 중인 문학집인 『昭代風謠』를 편찬하였고, 중인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㉚ 金萬最은 젊어서 악소배와 어울려 다니며 나쁜 짓을 하다 불현듯 깨달아 학문에 몰두했다. 시와 술을 즐기며 나중에 조용히 은거하며 여생을 보냈다. ㉛ 鄭來僑는 홍세태의 뒤를 잇는 뛰어난 시인으로 인정받았다. 호탕한 성격에 시와 술을 즐겼다. 당시 조선의 장적으로 평가받았다. ㉜ 鄭敏僑는 정래교의 동생으로 어려서 과거공부를 해서 성균관에 들어갔다. 고시와 근체시로 인정받았다. ㉝ 鄭後僑는 새벽에 순찰하는 사람

한데 붙잡혔는데 순찰꾼이 정후교의 시를 외우고 있어서 풀어주었다는 일화로 당시의 정후교의 시가 유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유행가처럼 널리 회자되었으리라 사료된다. ㉔ 白胤耆는 『學古堂集』을 남겼고, 효성과 우애가 뛰어났으며, 정전제나 학교의 설립, 면세전 혁파 등 정치현안에서도 뛰어난 고견을 제시했다. 禮에도 밝아 「상례보편」을 편찬하다가 죽었다. ㉕ 韓以亨은 어려서부터 근사록, 예학에 정통했다. 우리나라에 數學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 기하학을 완전히 이해하였다. ㉖ 李夢鯉는 소학을 읽고 배운 대로 행동하며 예를 체득했다. 곤경에 처해도 예를 잃지 않았기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품행이 단정하고 절도가 있었다. ㉗ 崔天翼은 진사시만 보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多讀을 하며 글방에서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문장과 학문이 뛰어났지만 그의 덕이 먼저 일컬어졌다. ㉘ 朴永錫은 논어에 심취하였다. 예를 지키며 가난을 타하지 않았다. 군자라고 당시 사람들에게 일컬어졌다. ㉙ 李最濬은 어려서부터 과거준비를 하였다. 그러다가 대신 제출한 답안지가 합격하여 그 뒤로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다. 그만큼 문장 실력을 겸비하고 있었다. ㉚ 金泳은 주역에 통달하여 하늘의 운행을 잘 알아 조정에서 천체의 운행에 관한 일은 김영에게 물어본 뒤 행하였다. ㉛ 石希璞은 시와 술로서 삶을 즐겼고, 신유와의 의리를 지켜 어려울 때에도 잊지 않았고, 그의 시문은 해동유주나 소대풍요에 수록되어 있다. ㉜ 李彦瑱은 시를 빨리 짓고 빨리 쓰는 재주가 있었다. 일본에 통신사 서기로 갔다가 부채 천 자루에 시를 써서 일본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㉝ 李奩은 시와 글씨로 사대부들과 교유하며 이름났다. 수성동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詩識이 되어 병들어 죽었다. ㉞ 千壽慶은 송석원 시사의 수장으로서 시로서 많은 문인들과 교유하였다. 풍요속선을 간행하여 증인문학의 중흥을 이끌어냈다. ㉟ 金洛瑞는 내각의 서리들이 문장의 재주를 다룰 때 중후한 멋을 지닌 단정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었지만 남긴 시는 1천 5백편이 되었다. ㊱ 張混은 어려서 총명하여 輒覽強記 하였다. 시를 잘 지었고 아버지에게 지극한 효도로 이름났다. 문집

8권을 남겼다. ④7 王太는 넉넉지 않은 가정환경 때문에 술집에서 일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의를 잃지 않았다. 스승에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문사를 인정받아 임금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④8 趙秀三은 산수를 즐기며 중국을 유람하며 시풍을 넓혔다. 연경으로 가는 수레에서 중국말을 전부 배웠다라는 고사로 유명하다. ④9 鄭民秀는 벽산선생으로 불리었고, 본디 의술을 배웠으나 시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빈궁한 생활을 하면서 학도들을 가르쳤다. ⑤0 朴允默은 효성이 지극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스승이 병에 걸려도 병구완을 옆에서 하였다.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친에 대한 효성을 잃지 않았다. ⑤1 李至和는 학서선생으로 불리었고, 문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글씨에도 능했다. 인격적 감화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⑤2 金弘遠은 널리 여러 서적을 섭렵하였고, 문장이 간략하고 고아했다. 과묵했지만 학문의 풍부함을 인정받았고, 언론은 시원스러웠다. ⑤3 鄭芝潤은 신실하고 겸손하여 재주를 뽐내지 않았다. 시를 잘했고, 고금의 시문을 섭렵했다.

네 번째는 書畫이다. 書畫에 속한 인물은 9명으로서

⑤4 李壽長은 어려서부터 글씨를 익혔다. 다른 사람의 서체를 답습하려 하지 않고 진나라의 필법으로 자가를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⑤5 嚴漢朋은 글씨 쓰는 것으로 이름났다. 한석봉과 비교될 정도로 명필가라고 인정받았다. 단정한 글씨체를 추구하였다. ⑤6 曹匡振은 이원교의 서체를 익혔고, 만년에 안진경체를 체득하였다. 명의 서예가 동기창의 글씨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났다. ⑤7 金鳴國은 그림으로 이름났는데 옛 법을 본받지 않고 자기만의 일가를 이루었다. 술에 취하면 그림을 더욱 잘 그렸다. 명사도로 유명하다. ⑤8 秦再奚는 초상화에 뛰어났다. 의로서 신임사화의 고변자인 묵호룡을 그리지 않는 절개를 보여줬다. ⑤9 金弘道는 산수, 인물, 화훼, 영모 등 다방면에서 뛰어났다. 藝苑에서 그 실력이 으뜸이었다. 대궐의 그림을 도맡아 그렸다. ⑥0 崔北은 성격이 뻗뻗하여 오만하게 보였다. 술을 좋아하며 권세에 붙지 않았다. 화훼, 영모, 괴

석, 고목 등을 잘 그렸다. ⑥1 林熙之는 술을 즐겨 하면서 대나무와 난초를 잘 그렸다. 광탄한 행동을 하며 자의자득하였다. ⑥2 田琦는 산수와 연운에 뛰어났다. 그림뿐만 아니라 시에도 능했다. 배우지 않고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

다섯 번째는 醫이다. 醫에 속한 인물은 3명으로서

⑥3 白光炫은 처음에는 말을 치료하다가 침을 써서 사람을 치료하였다. 중기를 치료하는 데에 뛰어나 御醫까지 역임했다. ⑥4 趙光一은 鍼隱이라 호를 하고, 권세에 부합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데에 힘을 썼다. ⑥5 李益成은 가난 때문에 사환가의 식객으로 있었다. 의학에 몰두하여 당시에 이름났던 許照보다 뛰어난 의원이 되었다. 성품이 올곧아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예를 갖춘 이들을 치료해주었다.

여섯 번째는 碁이다. 碁에 속한 인물은 2명으로서

⑥6 庾纘洪은 어려서 기억력이 좋아 이소경을 전부 외운 뒤에 학업에 뜻을 잃고 바둑에 몰두하여 國手가 되었다. 당시에 바둑에 뛰어났던 덕원군과 윤홍임을 이겨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⑥7 金鍾貴는 국수로 인정받았고, 김한홍과 이학술이 당시에 바둑으로 유명한 이들이었다. 김한홍에게 수세에 몰려 지고 있는 판을 역전하여 이겨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일곱 번째는 琴이다. 琴에 속한 인물은 1명으로서

⑥8 金聖基는 처음에 활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왕세기를 따라 거문고를 배웠다. 통소와 비파로 다룰 줄 알고 곡조도 만들게 되었다. 목호룡의 부름에도 義가 아니고, 禮도 아니어서 나가지 않았다.

여덟 번째는 卜이다. 卜에 속한 인물은 1명으로서

⑥9 劉雲台는 맹인으로 일곱 살 때 실명하였다. 주역에 통달하여 점을 잘 쳤고 효제충신의 도리에도 밝았다.

아홉 번째는 其他이다. 其他에 속한 인물은 6명으로서

⑦0 曹生은 책을 파는 사람인데 그 행적이 기이하다. 항상 배옷과 신 한 켤레로 다녔고, 책을 팔아 술을 마셨다. 늘 분주히 다니며 신선과도 같은 면모를 보였다. ⑦1 廉時道는 정직한 성품으로 은덩어리를 주워 주인을 찾아주고 주인인 허건이 옥사에 연루되었지만 주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등 의리를 지켰다. ⑦2 金壽彭은 청렴결백함으로 살았고 자기 동생이 집에서 불법적으로 염색업을 하자 덮어주지 않고 모두 뒤엎어 버렸다. 공문서의 처리에도 엄정했으며 불합리한 궁녀 선발에 대해 신문고를 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았다. ⑦3 庾世通은 효성스럽고 몸가짐이 단정하였다. 모친상에 자신의 복색이 너무 화려하다고 여겨 흑단령을 만들기를 조정에 고하여 제정하게 하였다. ⑦4 申斗柄은 참동계를 즐겨 읽으며 승문원에서 사대문자를 주관하였다. 누님을 봉양하기 위해 벼슬을 하였다. ⑦5 文金生員은 여자조카가 숙원이 되었는데, 숙원의 동생 성국이 교활하고 사나운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숙원과 교유를 끊고 성국을 피해 집을 떠나 유람을 하다가 성국이 죽은 후에 돌아온다.

열 번째는 女性이다. 女性에 속한 인물은 10명으로서

⑦6 吳孝婦는 일찍 과부가 되어 딸들과 살다가 이웃집 실수로 집에 불이 옮겨 붙었는데 神主를 지키기 위해 다시 불속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마침내 죽었다. 자신의 목숨보다 신주를 더욱 아꼈던 것이 애석하다. ⑦7 翠梅는 김성달의 딸로 공금을 횡령한 아버지를 구명하고자 수백 집을 돌며 사람들을 감동시켜 결국 아버지를 구명하게 된다. 아버지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洪次奇와 비슷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진심이 기특하다 하겠다. ⑦8 安峽孝婦는 시집가서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개가 하지 않고 늙으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살았다. 친정어머니는 개

가시키려고 하였으나 끝내 그 뜻을 꺾지 못했다. 영물인 호랑이가 호위할 정도로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효성이 지극하다 하겠다. ㉗ 金家母는 집에서 우연히 백금을 얻었지만 헛된 재물은 재앙일 뿐이라는 것을 어린 아들들에게 교육시키면서 결국 아들이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재물을 가버려 여기고 남에게 베풀게 되었다. ㉘ 高節婦는 시집갔는데 남편이 병이 들었다. 병구완을 위해 자기 팔을 베어 피를 한사발 남편에게 먹였지만 효험이 없었다. 결국 친척들의 묘를 한 곳에 모으고, 가산을 정리한 뒤 남편이 죽은 지 열흘 만에 자결하였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극단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풍습이나 관념에서 봤을 때에는 대단하게 여겨지고 칭송받을 행동이었을 것이다. ㉙ 嚴烈婦는 시집갔는데 남편이 아팠다. 점쟁이들이 부인이 죽어야 남편이 산다고 하니, 결국 약을 먹고 자결하여 남편을 살렸다. 이것 역시 지나치다고 여겨진다. ㉚ 河節婦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죽었다. 30년 동안 남편의 무덤가를 지키며 수절하였다. ㉛ 李孝女는 아버지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자 구걸을 해서 아버지를 봉양했다. 귀양갈 때나 사면되어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극진히 봉양하였다. ㉜ 蓮紅은 기생으로 홍경래의 난에 가족을 잃고, 군수 부자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지내주고, 의병을 모으는 등 의로운 행동을 하였다. ㉝ 嶺東義婦는 영동에서 온 머슴살이를 하다가 부인이 『史記』의 한 구절을 듣고, 예전의 남편에 대해 의리를 저버렸다고 여겨 지금의 남편에게 이별을 고하고 홀로 의리를 지키고자 하였다. 깨달은 바는 좋다고 하겠지만 지금의 남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이를 만하다.

IV. 結論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熙朝軼事』의 完譯을 통해 孝友, 忠義, 文學, 書畫, 醫, 碁, 琴, 卜, 其他, 女性의 10가지 주제별로 상, 하의 두 권으

로 엮어진 85명의 중인 이하 계층들의 삶을 고찰해 보았다. 뛰어난 능력이나 덕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인이라는 사회적 신분의 한계로 인하여 顯達하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뚜렷한 두각을 드러냈다.

中人들은 양반 계층에 비해 신분적으로 뒤쳐지지만 중앙에서 펼친 실무 능력은 그들의 것에 못지않았다. 또한 국외에 나아가서도 외교적 실무관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중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신분이 그들의 능력까지 제한하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중인들의 문학세계인 委巷文學을 형성하면서 문학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지위를 상승시켜 나가려는 중인들의 의지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중인들은 詩社의 형성, 詩文集의 발간, 중인 傳記의 저술 등 다양한 문학 활동을 통하여 양반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입지를 구축하기에 이른다.

그 가운데에서 『壺山外記』, 『異鄉見聞錄』, 『熙朝軼事』로 이어지는 중인들의 傳記類들은 그동안 중인문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漢詩라는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고 散文을 통해 중인 가운데 뛰어난 인재들의 삶을 기록하여 泯滅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힘썼다.

『희조일사』는 특히 『이향견문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로 대외적 활동이 활발했던 鄭六同, 朴義, 金禹錫, 李亨翼, 安龍福, 李最濬, 金弘遠, 金家母 등을 기록하여 단지 중인들의 생활과 문화의 저술에만 머물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크게 활동해 명성을 날렸던 중인들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나 丙寅洋擾 등과 같은 일말의 사건들과 나라에서 추진하던 쇄국정책과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사료들로서 시대상을 반영한 중요한 작품이라 하겠다.

결국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중인으로서는 대외적으로 외세의 침략에 맞서 공을 세운 것을 드러내기 보다는 신분적 한계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냈던 일들을 보여주면서 양반과 중인의 구분 없이 모두 평등하게 나라를 염려하고 그것을 해결할 능

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점차 세대가 내려오면서 중인이라는 말이 사라져 가고 신분제가 철폐 되는 데에 이르렀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중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중인들의 전기는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시민, 또는 서민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뛰어난 인재들의 이야기를 남기고자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높은 직책에서 큰 업적을 이룬 한 사람의 주인공만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밑에서 묵묵히 뒷받침을 해주는 수많은 조연의 도움이 있어야 완성된 작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熙朝軼事』는 조선시대를 살다간 주연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주변 서민들의 一代記이고, 조연들의 이야기이다. 신분적 한계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감동적인 휴먼스토리이다. 그런 감동적인 조연을 빼놓고 어찌 곁으로 드러나는 주연만을 讚美하겠는가? 이러한 잔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후세까지 남겨 그 사람들이 가졌던 정신을 잊혀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 李慶民이 『회조일사』를 편찬한 까닭일 것이다.

본 논고는 그동안 『異鄉見聞錄』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주류를 이룬 상황에서 『熙朝軼事』의 인물들을 모두 분석한 점이 그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처음이라는 말을 쓰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그 내용면에서 難澁하고 부족하기에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본 논문으로 중인들의 열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들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가진 능력이나 업적들이 주머니를 뚫고 나온 송곳처럼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에서 『熙朝軼事』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논고는 인물들에 대한 분석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다. 훗날 필자보다 더 많은 학문적 소양과 능력

을 가진 사람들의 후행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중인 전
기집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거칠고 산만한 문장에 대해 후
학자들의 따끔한 질책을 기다려 본다.

<參考 文獻>

- 西江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熙朝軼事』, 元一社, 1990.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이향견문록』, 글항아리, 2008.
李相鎭, 『이향견문록』, 자유문고, 1996.
이성호, 『이향견문록』, 민음사, 1997.
- 강명관, 『조선후기 여향문학연구』, 창작과비평사, 1997.
안영길, 『조선 위향인의 문학과 풍류』, 북코리아, 2008.
尹在敏, 『朝鮮後期 中人層 漢文學의 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1999.
林煥澤, 『李朝後期 閭巷文學叢書』, 驪江出版社, 1991.
정옥자, 『조선후기 중인문화연구』, 일지사, 2003.
鄭後洙, 『朝鮮後期 中人文學研究』, 깊은샘, 1990.
車溶柱, 『韓國 委巷文學作家 研究』, 景仁文化社, 2003.
千柄植, 『朝鮮後期 委巷詩社研究』, 국학자료원, 1991.
허경진, 『조선 위향문학사』, 태학사, 1997.
許南郁, 『朝鮮後期 文學思想研究』, 誠信女子大學校, 1995.
——, 『朝鮮後期 文學思想의 흐름』, 江原大 出版部, 2007.
韓國漢文學論文選集, 『中人層의 文學活動과 委巷文學』, 불함문화사, 2002.

Abstract

*A Study for Character of Themes in Heejoilsa / Park Jong Sun**

The Joseon Dynasty had a class system mainly with Yangban. Most of old archives involve the upper class's culture and documents. However, Yangban was on the social and economic decline, whereas Chungin grew richer than the former class and began to make the Middle Class Literature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Their first fruit was Haedongyuju published by Hong Se-Tae in 1712. And selections of poems such as Sodaepungyo(1737), Pungyosokseon(1797), and Pungyosamseon(1857) were published. Although Chungin was lower than Yangban, they published various biographies to show their excellent literary talent and presence. Among them, Hosanegi by Cho Hee-Ryong was the first collection in 1844. The book contains 39 biographies about 42 people. Ihyangueonmunnok by Yoo Jae-Keon(1862) was followed. Heejoilsa(1866) was also published around the same time.

The book was published by Lee Kyoung-Min who was a civilian official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It is based on biographies and anecdotes about people who had various talents, while they were unmentioned in any official history and not well known in the world. It comprises of 2 volumes with 85 biographies. Even if Heejoilsa contains less than Ihyangueonmunnok and there's a huge overlap between the two books, the former includes new people such as Jung Yuk-Dong, Park Eui-Jung, Kim Woo-Seok, Lee Hyung-Ik, Ahn Yong-Bok, Lee Choi-Jun, Kim Hong-Won, and Kim Ga-Mo.

Those new people were commonly active in international issues; they

* Kangwon University / pjs777@kangwon.ac.kr

protected our country against foreign invasions. There was a certain correlation between them and the year(1866), when Heejoilsa was published. For these reasons, Joseon Dynasty strengthened a closed-door policy and the situation led the author to add biographies of Chungins who were involved in outside activities and protected our country against foreign invasion in Heejoilsa. Therefore, there was quite a little correlation between them.

The involved people can be classified into filial duty and fraternity(10), loyalty(13), literature(30), paintings and writings(9), medical practice(3), skill(2), string instrument(1), fortune-teller(1), others(6), and women(10). The author didn't mention people who had already a respect or won official commendation, but unrevealed people in order to conserve their excell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complete translation of Heejoilsa, examine the individuals' excellence and true themselves, consider the times, and then describe their social activities beyond their limit of position within the rigid class system.

【Key words】 Middle Class Literature, Heejoilsa, Chungin biography, characters image, group biography

투고일 : 4월 28일, 심사일 : 5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4일